

編輯後記

◎……완연한 여름이다.

찌는듯한 무더위, 수온주가 올라갈 수록 불쾌지수가 또한 높게 오른다. 땀방울이 원고지에 떨어져 얼룩진다.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빛나는 祖國의 무궁한 榮光을 위하여 잠시도 멈출 수는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.

◎……環境은 總力安保態勢의 強化를 指示하며 그에 따른 心情的合致를 要求하고 있다.

誠實·正直·奉仕의 姿勢로서 業務에 臨하여 國家의 總和에 滙害되는 어떠한 事例도 철저히 배격하여야만 되겠다. 이는 결코 口號에만 그칠 수 없는 우리의 至上課題이기도 하다.

◎……原稿모으기가 꺄이나 어렵다. 무더운 날씨 텃일까? 보다 알차게 엮어보려고 많은 努力を 했으나 웬지 編輯者가 要求하는 方向에서의 原稿 수집이 잘 안된다.

火災豫防이라는 어려운 難題를 研究하는 從事者가 많지 않은데 그~原因이 있을 게라고 나는 생각을 해 본다.

◎…계속적인 激勵와 聲援을 보내준 讀者諸位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健康과 健闢을 빌어다지 않는다.

火災安全點檢

(通卷 8號)

登錄番號 呂 520

登錄日字 1973年 10月 11日

〈非賣品〉

發行人 李 養 浩

編輯人 金 雲 淑

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

서울 中區 草洞 21-9

電話 ④4106-10 ④1695-8

(交) ④0082-5 ④4128-9